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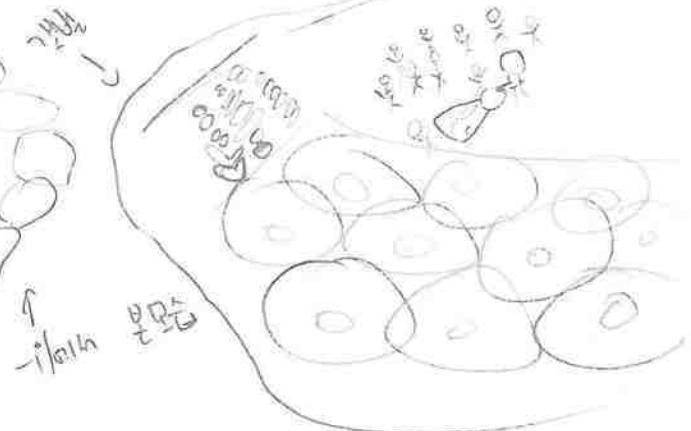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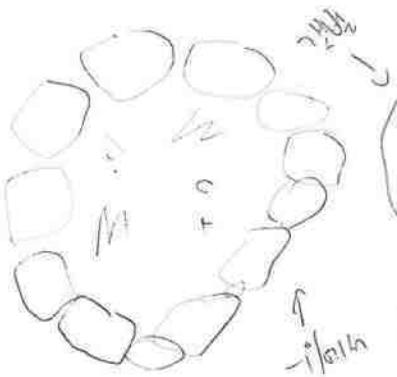
□ 참여자 이름 : [REDACTED]

/ 백수서초등학교

6학년

제일 처음에 갯벌로 체험학습을 갔다. 나는 다세대 못들어갔지만 동생들과 친구들이 활동하는 것을 볼수 있어서 좋았다. 근데 처음에는 앞에서만 하다가 나중엔 멀리 가버려서 볼수있게 되었다. 그래서 날 도학면 선생님과 같이 앉아 앉았다. 5학년 선생님께서 꽃게가 제기 있다고 해서 난 꽃게를 찾았다. 처음에는 양보였는데 자자히 보니까 있었다 꽃게가 작아서 귀여웠다. 그리고 계속 한자리에 앉아 있어서 지루하였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가며 앉았다. 옮긴 자리에 끈어진 낚싯줄이 있었다. 그래서 그냥 그자리에 앉아서 낚싯줄로 낚시하는 걸로 했다. 하지만 사류했다. 그리고 난 일어서 걸어다녔다. 걸어다니다가 엄청 큰 나방이 주목되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냥 서있는데 선생님들과 등줄을 친구들이 오고 있었다. 그때 머리부터 뺨에 빨이 묻어있는 애들도 있었고 물고 음미 뺨에 빨이 묻어있는 애들도 있었다. 그런 애들을 보니깐 재미있게 활동하고 온갖을 느낄 수 있었다. 갯벌 체험을 끝내고 기숙교수지(첨산고회)에 갔다. 가자마자 먼저 보았던 무설이었다. 무설을 보니 꿈꾸었고 즐거웠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서 등영장을 하나 들여주셨다. 영상에선 전쟁이 일어나 있었다. 내가 그때 당시 사람이었다면 무서웠을 거다. 나도 미역에 무서운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더 미역을 먹을 것 같다. 영상을 나오나니 고충으로 올라 갔다. 그들은 전투물이 많았다. 멀린 그림과 옛날 우리나라 국기 등 여러 가지가 많았다. 전시물을 다 보나니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들어올 때 봤던 것들이 있었다.

슬퍼기도 했지만 재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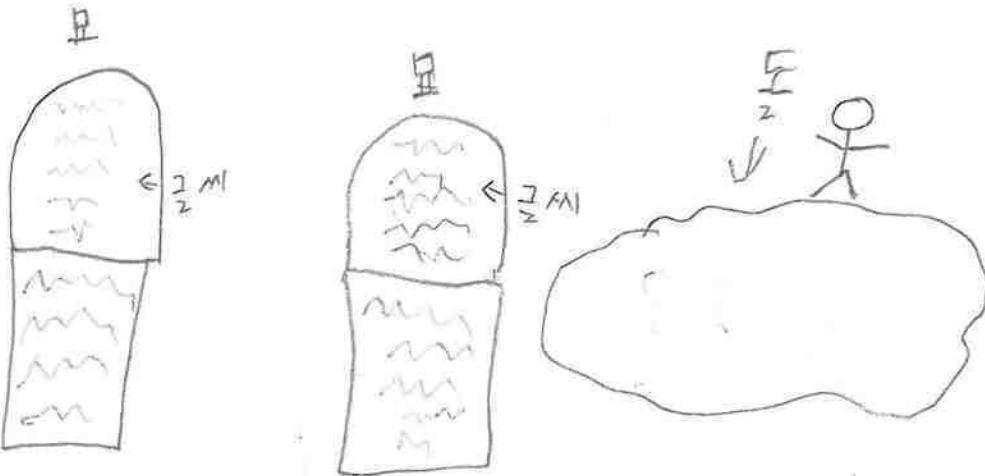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 참여자 이름 : ○○○

/ 백수서초등학교

6 학년

체험에는 갯벌 체험을 하러 갔다. 그 다음에 주변하고 괭이로 반았다. 바구니를 받으러 갔는데 남은 게 없어서 그냥 괭이만 듣고 갔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신발을 뺏고 양말신은 체로 갯벌에 들어갔다. 처음 들어갈 때는 모래를 밟는 것 같았는데, 더 걸어가서 물이고여 있는데 지나간는데 거기서부터 밤이 빠졌다. 물고인데 치나가니까 표지판 갯벌이었다. 밤에 딱딱한 게 밟혔다. 그리고 갯벌을 지나가다 보면 죽은 생물도 있었다. 더 들어가니 무릎까지 들어갔다. 너무 깊었단다. 선생님이 꽃게를 잡으셨다. 그래서 갯벌 들어가는데 손을 넣었는데 진흙만 잡혔다. 갯벌을 나와서 흐레가 있는데는 꼬개구멍이 작은 것도 있고, 바위 있는 꼬개가 더 많았다. 짜증을 살게가 더 많았다. 다시 걸어서 샤워장에서 씻고 버스타고 염산교회로 갔다. 영상을 틀어주셨다. 전쟁을 하던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다 보고 다른 데로 가서 옛날에 무기도 전시되어 있었다. 멀진 구조도 있었다. 나와서 옛날에 씻던 교회가 보였다. 그런데 잠겨있었다. 그 안에 거울이 있었다. 거울 옆에는 미자 몇 개가 보였다. 돌이 큰 것이 보였다. 선생님이 돌에 앉으면 좋다고 하셨다.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참여자 이름 : [REDACTED] / 백수서초등학교 6 학년

처음에는 갯벌체험학습을 갔다 그리고 짐을 두고
갯벌에 신발 벗고 양말을 신고 갔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래였는데 더 멀리 가면 너무 깊었다 그런데 앉으
니깐 느낌이 좋았다 그리고 누었다 그런데 손을
휘저으니까 조개가 나왔다 그리고 더 멀리 갔다 그런데
똑같았다 선생님이 애기 꽃게를 잡아주었다 그리고
돌아가서 씻고 옷 갈아 입고 버스타서 영산교회로 갔다 그리고
영산교회로 올라갔는데 큰 무덤이 있었다 그런데 유효 전쟁 때
영산교회에서 돌아가신 분들이었다 그리고 77명이 죽었다고 했다
그리고 2층 가서 북한군이 썼던 돌이랑 창이랑 칼도 있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갔다 정말 재미있었다
기회가 있을면 갯벌이랑 영산교회를 또 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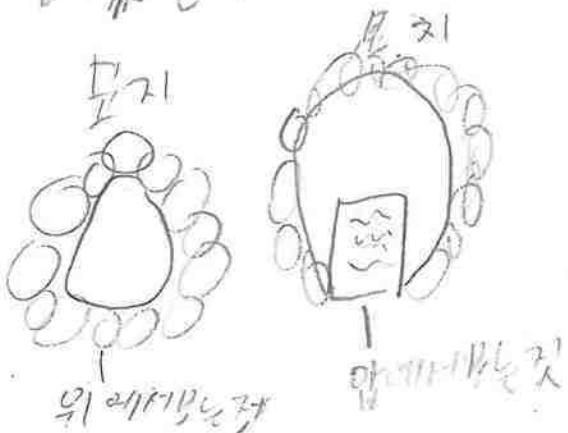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 참여자 이름 :

백수서초등학교

학년 6

처음에는 갯벌 여행에 와서 그대로에서 놀았었고 그들이 들어갔다. 처음에는 어온 내가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손을 드는 것 같기도 했지만 갯벌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대로 마을 사람들은 아까운 듯하고 바위가 정말 딴판였다. 왜냐하면 갈비를 만난다거나 단단한 지름 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회를 치렀던 지점이다. 그리고 바위에 위에 가볍게 놓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가 꽤나 깨끗한 것 같다. 꽃들도 조개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하면 바구치가 많기 때문이다. 잡아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걸 해오면서 영산고개를 찾았다. 그래서 영산고개에 올라온다. 영산고개로 올라온다. 한명상은 봄하는데 6.25 전쟁을 날개 되어가는 그걸 때 사람 많이 죽었지 무려 70명이 죽었으나 그때 만인을 암는 그전에 6.25 전쟁에서 도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아서 그걸 봤다. 옛날 11월 7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있지만 그때 탱크나 오피가 대량으로 죽었을 것 같다.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 참여자 이름



/ 백수서초등학교

5 학년

영광은 놀거리가 많은 지역이다. 오늘 나는 2가지를 소개할 것이다 첫번째는 영산 두유리 갯벌을 소개할 것이다. 영산 두유리 갯벌에서 개최 되며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알려진 서해안의 광활한 갯벌에서 개별스포츠와 조개 잡기 등 펼쳐진다. 갯벌에서 짱등어도 있고, 망둥어, 조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잡진 못해지 만 갯벌에 들어가서 노니까 즐거워다.

갯벌에서 놀고 얼굴에도 물하고 제도보고 짱등어도 보고 재밌었다. 갯벌의 족감이 신기했다. 생크림 조금 묻은 거 같았다. 신났었다. 갯벌에서 수영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영산 두유리 갯벌을 얼굴에 물히면 피부가 좋아진다. 꿀 피부가 될수 있다. 그다음 소개 할 것은 영산 교회다. 기독교인 순교자다. 이 교회는 아픈 사연이 있다. 한국전쟁 6.25전쟁때 북한 군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다 죽였었다.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 참여자 이름 :

/ 백수서초등학교

5 학년 1반

영광은 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 모두
우리 영광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중에 우리는
2018년 9월 26일 염산 교회 그리고 두우리
갓벌체험장에 갔다. 먼저 우리는 갓벌체험을
하였다. 느낀점은 갓벌 딱 들어갔을때의
느낌은 매우 좋았다. 그리고 옷이 많이
젖긴 했지만 재밌었다. 그리고 바다
에는 새끼게들이 기어 다녔다. 그리고
갓벌에서 썰매를 타기도 하면서 썰매를
끌어주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재밌으면서
한편에서는 힘들었다. 근데 갓벌 안은 따뜻한데
밖에 나오니까 후덜덜덜 거리면서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 목욕을 하고 염산 교회로
이동하였다.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 참여자 이름 : [REDACTED] / 백수서초등학교 5 학년

영광은 산지촌·농촌·어촌이 모두 다 섞인 지역이 바로 영광이다.

첫일영 갯벌에 가서 동생들이 갯벌에서 놀았습니다. 갯벌에 있는 물으로 놀고 수영도 했습니다. 나는 유정리가 힘들까요, 그리고 이모 강기애 걸려는 때에 걸릴까요
그렇게 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빨간 벌에 둘째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갈말 274를 걸어서 신었지만 그걸은 간지리로 옮서도 밟을 때마다 수풀과 숲을 거렸습니다.
가쁜 갈수록 더 젊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제 체험이 끝나고 벌을 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빨간 뱃이란 물에 조금 벌이 트기거나 헤치지만 아직 조금이었다. 그리고 나의 274를
비겼습니다. 그 다음 장소는 영산교회에 갔다. 여기서 한 영상을 보았는데, 내용이 6·25 전쟁에서
북한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거나 학살하는 것이다. 실제로 영산 교회에
무덤도 있었다. 오늘 우리학교가 간듯이 처음으로 간 것도 있고 마을에도
있었다. 우리 지역 영광의 간강은 매우 274였다. 그동안에는 기독교 해수욕장에서
놀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간 지역은 274에 간 것이다. 274에 날아왔을 것이다.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 참여자 이름 : [REDACTED] / 백수서초등학교 5 학년

우리가 1번째를 간곳은 영광 천일정 갯벌에 갔다.
내가 가서 본것은 바로 계랑 짹뚱이랑 조개를 보았다.
狎鷗이를 자꾸 잡으려니까 들여간다. 그래서
이 절수 없이 짹뚱이는 못잡고 계하고 조개만 잡았다.
뻘이 누워 보니까 차갑고 느낌이 좋았고 못밀어 낸다.
갯벌에는 여러가지 수물 등이 있다. 그리고
갯벌에서 나오니까 온몸이 추위졌다.
그 번째로 우리가 가본 곳은 기독교 순교지에 갔다.
기독교 순교지에 가서 오래된 물건을 보았다.
그리고 유기호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았다.
옛날 성경책을 향마리에 숨겨 놓은걸 보았다.
그리고 영상에 북한 국인 사람을 죽이는
장면도 보았다. 그리고 다음 체험학습에는
승마장에 가면 좋겠다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 참여자 이름 :

/ 백수서초등학교

5학년

영산면 두우리 계곡에서 계을 가
왔는데 큰 계가 다 먹어 버렸다
그리고 큰 계가 도망같다 그래서
아쉬워 그리고 계는 아직 있다 그래도
재밌었다 6.25 전쟁◎ 당시 부한군의
교회터에 항거하여 신앙을 지키려다
도라 가셨다 무려 500명이다 그리고 거기는
주었다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 참여자 이름 : () / 백수서초등학교

4 학년

안녕하세요 전 백수 서초등학교에 4학년

대승린입니다 갓벌체험이랑 영산교회를
가면서 기쁘고 가랑 스럽네요

갓벌체험을 할때 어린게 를 학교

사람들이 많이 찾았어요 조개장

낙지랑 양동이 를 잡고 싶었지만

울 잡았어요 다음에 가면 좋을 것

조개, 낙지, 양동어 를 잡을 거예요 뒷장도 있어요! ▶

2019년 10월 2일



체험학습 보고서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 참여자 이름 : 7 / 백수서초등학교 4 학년 |

9월 28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1반 정시훈
이에요 저번에 가서 갯벌 체험에서
다양한 것도 보고 경험도 했고 체험도
했다. 체험장에서는 조개 캤고
게도 잡았다 그리고 바다深处은데도
들어갔고 그리고 들어 가니까 느낌이
좋았고 그리고 영산 교회도 갔다
그래서 영상을 보니 공산군이 사람들
사망 시켰다 사진도 보고 그림을
실제로 보니 까재미 있다
영산 교회는 옛날 무덤 있다
사람이 죽으니까 너무다 ——————
슬펐다 그리고
아버지들을 무덤에는
가고 싶다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 참여자 이름 : [REDACTED] / 백수서초등학교 4학년

갓벌체 힘에 가서
그래서 갓벌에서 신나게 놀아서 기분이 좋았다.

다 놀고 빨리 갔는데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선생님들이 간식을 주어서 좋았다.

염산교회에 가서

그 김을 많이 봤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에 있는 박물관에 가서 배고파서 주스 2개를 먹고 바나나 1개를 먹고 학교에 가는 길이었다.

먹고 학교에 도착해서 갓벌체험

염산 교회에 갔다 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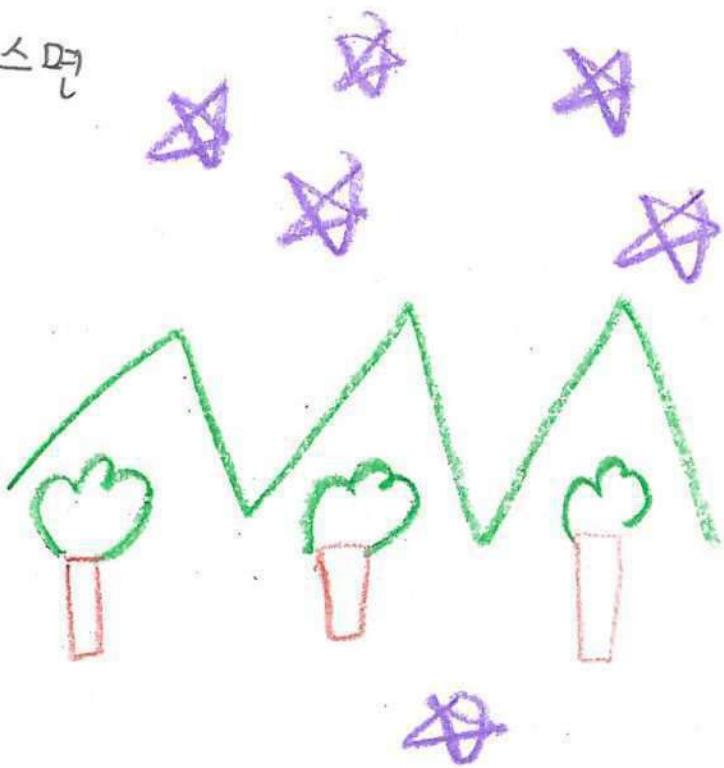
재미 있고 다음에 또 가스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체험

학습은 재미가 있어서 기분이

엄청 좋았고 있었다.

거기 갓벌 체험이 엄청 재미

9월 28일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 참여자 이름 : ○○○ 백수서초등학교

3학년 | 반

9월 30일에 영산 두우리 해수욕장

으로 갯벌 체험을 갔다. 가서 꽃게를 잡았다. 큰 꽃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잡으려다 꽃게를 밟고 말았다. 그래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다행이 꽃게들을 많이 잡아서 괜찮았다. 갯벌에 들어갔더니 사탕이 녹은 것 같았다. 맘을 려고 할 때 뺨이 뜯어졌다. 그리고 영산교회도 갔다. 거기서 영상을 보았는데 슬펐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인가 때문이다. 언니 오빠 동생들하고 영산을 또 가고 싶다.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 참여자 이름 :

백수서초등학교

2 학년

금요일에 버스를 전교생들과 버스타고 한참
기다렸다가 갯벌체험에도착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가방을 놔두고 신발도
벗고 갯벌에 들어갔다. 근데 밖으
물에 젖었다. 그리고 다음에 영진이와
게를 잡았다 근데 게가 영진이 오나를
꺼집었다. 그래서 큰게를 잡았다 근데
승권이랑이 가온몸의 갯벌을 물었다 그래서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 참여자 이름 : [REDACTED] / 백수서초등학교 2 학년

학교에서 9월 28일 금요일 때 학교에서
영산교회 예가간 따교회에서
영상도 보고 사진도 찍어다 체험 학습
가 쓰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 참여자 이름

/ 백수서초등학교 2-1 반 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진이에요

갓벌에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

(총성)

반갑습니다 갓벌에서 계속 계속

들어갔어요 재밌었습니다 교회는



역사와 사람들이 고통 받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많은 것을 배웠죠
그래서 즐거웠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휴식 맛있었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2018년 10월 2일 화보)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 참여자 이름 : ○○○ / 백수서초등학교 2 학년

친구 언니 오빠 선생님들 기

웃천 벌체 험을 갔다

꽃 계도 꽃고교회를 가서

동영상 을 들었다
여행에서 촬영한 것들을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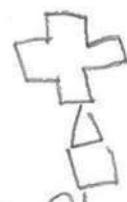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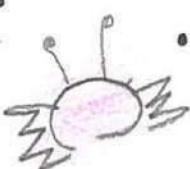
재밌는 하루였다

교회

偈 운 구

오 오

偈 빛



9월 28일 금요일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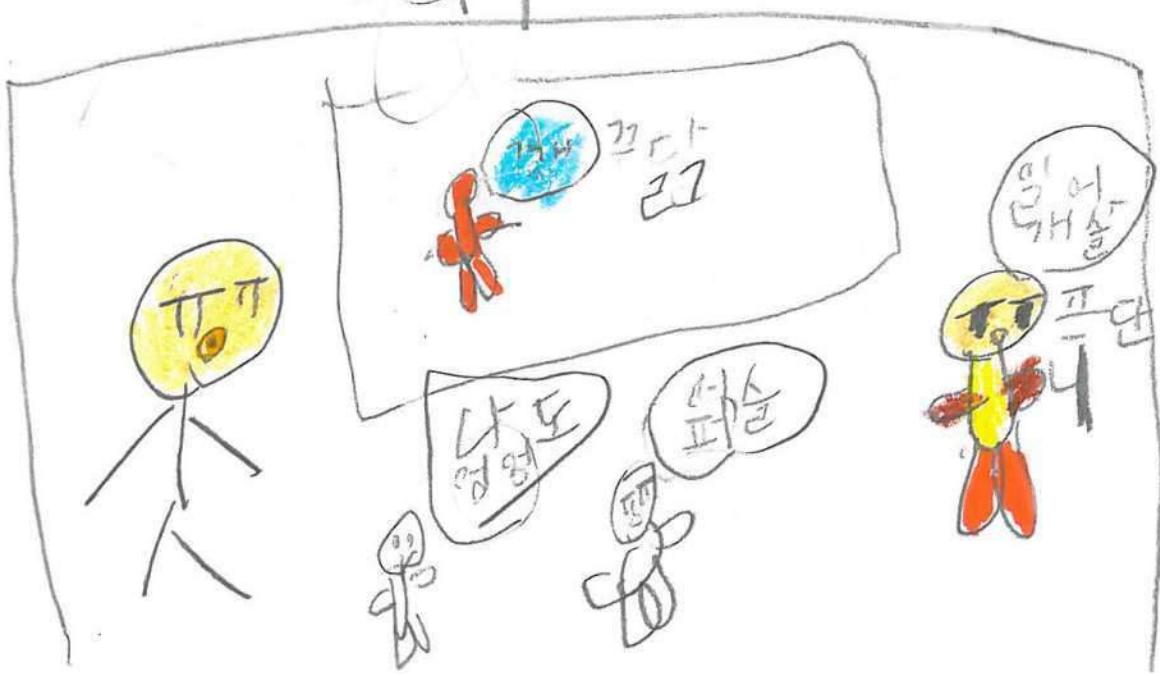
□ 참여자 이름 :

은아

백수서초등학교

2 학년

9월 20 팔일에 교회에서
선생님 친구들 형들
이 랑체 연학습 가는 날
이라 서 여상을 시프 제
봤다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 참여자 이름 : 김 [REDACTED] / 백수서초등학교 2-1 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은 이에요.



갯벌에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 반갑습니다.

갯벌 가서 꽃 게와 조개캐로 와어요.



갯벌에 가서 두어가 보기도 해서 좋아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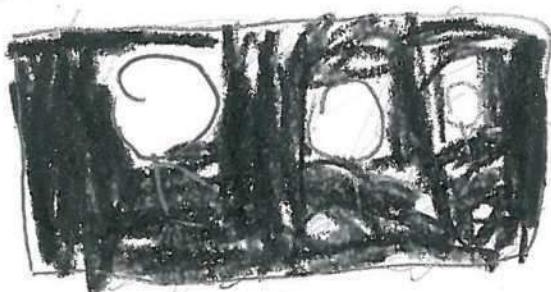
그리고 교회 가서 영상이 창무당도 보고 기분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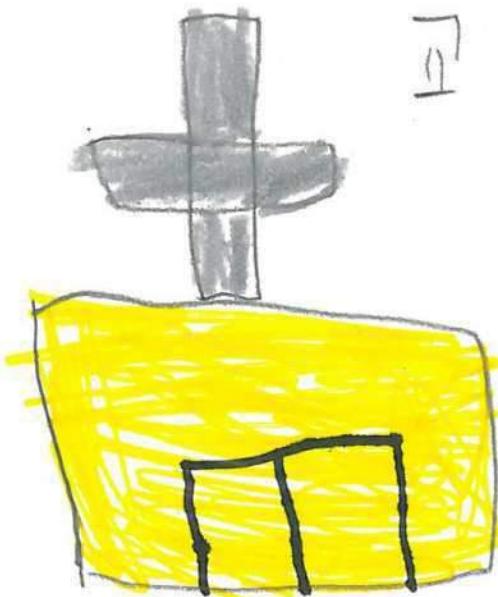
예,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갯벌



교회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참여자 이름 : [REDACTED] / 백수서초등학교 | 학년 |

갯벌체험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참여자 이름 :

진

백수서초등학교

/ 학년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참여자 이름 : 조민 / 백수서초등학교

(학년)

